

한-UAE, 150억 달러 규모 KF-21 전략적 방산 동맹 체결 및 공동생산 논의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날짜 : '25년 12월 18일 | 무역관명 : 두바이 | 작성자 : 김경화 대리 | |
| | | TEL : +971)4-450-4360 | EMAIL : khkim99@kotra.or.kr |

□ 개요

- (추진 배경) 2025년 11월 한-UAE 정상회담 및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, 양국은 단순 무기체계 도입을 넘어선 총 150억 달러(약 21조 원) 규모의 KF-21 포괄적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에 합의함
- 이는 UAE의 국방 자립화(Sovereignty) 정책과 한국의 방산 수출 영토 확장 전략이 결합된 결과로,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미래 국방·기술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함.
- (핵심 내용)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-21(보라매)의 완제품 수출뿐만 아니라, UAE 현지 공동 생산 라인 구축, 기술 이전(ToT), 제3국 공동 수출을 포함한 전방위적 협력 추진.



□ UAE 및 중동 안보 환경과 국방비 동향

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와 ‘자주 국방’ 니즈 확대

- (위협 고조) 홍해 물류 위기, 이란 및 대리 세력의 드론·미사일 위협 상존으로 인해 UAE는 자국 영공 방어를 위한 독자적인 타격 및 요격 자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.
- (조달 다변화) 기존 미국·프랑스 중심의 무기 체계에서 탈피,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 3의 대안으로 한국을 주목.

국방 예산 증액 및 집행 트렌드 변화

- (예산 규모) 2025년 UAE 국방 지출은 약 239억 달러(약 34조 원)로 전망되며, 연평균 6%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 중 (GDP 대비 약 5.3% 수준).
- (ICV 정책 연계) 단순 완제품 구매 예산은 축소하고, 자국 내 가치 창출 (In-Country Value)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조건이 포함된 계약에 예산을 집중 배정.

□ 한-UAE 국방 및 방산 협력 현황

굳건한 신뢰의 상징, 아크부대와 군사 협력

- 2011년 아크부대 (UAE 군사훈련협력단) 파병 이후 축적된 양국 군 간의 신뢰는 방산 협력의 핵심 기반임. 특수전 훈련뿐만 아니라 최근 연합 고공강하, 대테러 훈련 등으로 교류 범위가 확대됨.
- UAE 측은 아크부대를 통해 확인한 한국군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운용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, 이것이 천궁-II (M-SAM)에 이은 KF-21 협력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.

특별 전략적 동반자 기반의 방산 수출 쾌거

- (천궁-II 성공) 2022년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-II 계약은 단일 무기 수출을 넘어 양국 방공망 통합 운영의 가능성을 열었으며, 이번 KF-21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.

□ 핵심 이슈: KF-21 전략적 동맹 및 공동 생산 논의
150억 달러 규모 KF-21 얼라이언스 (Alliance) 구축

- (규모 및 범위) KF-21 블록-I/II 도입 비용, 수명주기 간 유지보수(MRO), 현지 생산 설비 투자 등을 포함하여 총 15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메가 프로젝트.
- (공동 생산) UAE 국영 방산기업 EDGE 그룹 산하 공장에 KF-21 최종 조립 라인(FAL)을 구축, UAE 공군용 기체를 현지에서 조립 및 생산하여 Made in UAE 방산 목표 달성 지원.

단순 판매가 아닌 기술 및 플랫폼 공유

- (R&D 협력) 양국은 KF-21 블록-III (스텔스 성능 개량형) 개발 단계부터 공동 연구 개발 (Joint R&D)을 추진하고, 무인기(MUM-T) 복합 운용 체계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.
- (MRO 허브) UAE를 중동·북아프리카(MENA) 지역의 KF-21 및 FA-50 정비·부품 공급 허브로 육성하여, 향후 제3국 수출 시 후속 군수지원을 UAE 거점에서 수행하는 전략 수립.

□ 검토 의견 및 시사점

[전략] 판매자-구매자 관계를 넘어선 안보·기술 동맹 심화

- 지정학적 리스크(홍해 사태, 우크라이나 전쟁 등)로 인한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붕괴 속에서, 한국의 압도적인 제조 역량과 UAE의 지정학적 물류 거점 기능을 결합하여 가장 안정적이고 회복 탄력성 높은 대안 공급망을 창출함.

[기회] K-방산 낙수 효과 및 공급망 진출 가속화

- 완제기 수출과 연계하여 항전 장비, 엔진 부품, 정밀 유도 무기 등 국내 중소 중견 방산 기업의 동반 진출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.
- UAE의 현지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, 국내 기업들은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합작법인(JV) 설립 등 현지화 전략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함.

□ 출처:

Defence Security Asia, “South Korea Targets Massive USD15 Billion KF-21 Figheter Alliance with UAE (2025.11.20)

Gulf Magazine, “South Korea and UAE strengthen Powerful Defense Partnership” (2025.11.18)

GlobalNewswire (GlobalData), “UAE Defense Market Report 2025: Size, Trends, and Forecasts to 2030” (2025.10.21.)

GlobalData, “UAE Defense Market Analysis & Forecast”

Army Technology, “Localisation of the defence industry in the UAE: New players and initiatives” (2024.07.05.)

The Diplomat, “South Korea Eyes Defense Exports to Europe, Middle East” (2025.11)

연합뉴스, “UAE 대통령 ‘한국 방산 기술 신뢰’ ...KF-21 공동개발 논의 극물살” (2025.11.30.)

헤럴드경제, “K-방산, 중동서 잭팟... 150억불 규모 협력 논의